

11/6/22

설교 제목: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4 장 1-14 절

-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절관주** 요 14:18, 요 14:28
- (요 14: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 (요 14: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절관주** 요 13:36
-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 (요 14: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 (요 14: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절관주** 요 12:45, 골 1:15, 히 1:3
-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요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 (요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공생애를 함께 한 제자들에게 13 장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의 지상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세지로 마무리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떠나가심으로 인해 충격과 절망에 빠져 근심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앞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본장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당신의 떠나가심(1-14)과 다시 오심(15-31)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낙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제자들도 모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물을 술로 변하게 하시는 것,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 보리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시는 것,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까지도 목격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토론하시는 장면도 보았고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처럼 강하고 거대하게 부흥시킬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 다니며 예수님이 후에 유대 왕이 되면 요직 한 자리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저녁 만찬을 하자고 하시더니 만찬 자리에서 당신이 떠나야겠다고 하시며 당신이 가는 곳에 제자들은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다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몹시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아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고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과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천국에 가셨다가 준비를 마치면 다시 이땅에 돌아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관 복음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도 종말론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종말을 먼 미래로 보지 않고 현재적으로 봅니다.

그는 종말을 하나님 나라 천상과 지상 교회에서 동시에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보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삶 자체를 종말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상충되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불리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와 일치할 뿐 아니라 하늘의 거처 곧 천국과도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서 볼 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구절의 의미는 성전의 성취인 교회 공동체와 성전의 원형인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가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서'의 의미 또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가서'는 '다시 와서 영접하여 데리고 갈 것이다'는 말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데에 큰 이견은 없으나 '다시 오심'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다시 오심'을 '부활'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영접의 의미는 부활 이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상호 내주하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다시 오심'을 '성령의 오심'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6 절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23 절의 삼위일체의 내주에 대한 약속, 26 절의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는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3 절 후반부의 약속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세째, '다시 오심'을 '재림'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째,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오심, 재림' 모두로 종합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격이 확실한 도마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 14: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 14: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요한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곧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빌립이 아버지를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14: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성육신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이미 대면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빌립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 14: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서를 쓰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능하고 똑똑한 랍비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연하여 아들과 아버지의 궁극적인 연합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인격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 1 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당신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제자들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믿는 자는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큰 일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하며 세상을 삽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앞날을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앞날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